“존중과 사랑 공동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지난 한 해 우리는 크고 작은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도 불법의 가르침을 삶 속에 펼치고자 한 여러분의 실천은 진정한 보살행의 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리심의 발현이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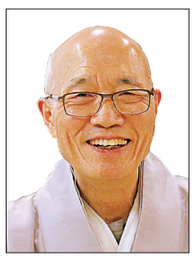
새해는 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만, 동시에 참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짐의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를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리심은 온 세상 모든 중생이 서로 의지하고 연기하여 존재함을 깨닫는 데서 비롯합니다.

다른 이의 기쁨과 슬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돕는 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불법을 통해 마음의 빛을 키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경 너머 자비의 꽃”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로터스월드는 그동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척박한 땅에 학교를 세우고 물을 길어 올리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도 본래 존귀한 부처님이라는 깨달음의 나눔이었습니다.

새해에도 로터스월드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세상을 향한 따뜻한 동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가난한 마을이 자립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와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보듬는 일에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비로운 원력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촌이라는 한 일터에서 상생하는 도반이 되어, 전 세계에 희망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향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연등 되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도량을 깨우는 새벽 예불의 법향이 널리 퍼져 일체 만물을 깨우듯 우리들의 새해 서원도 모든 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희망과 자비의 빛으로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였으나 부처님의 자비가호 속에 서로 고통을 나누며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청정한 수행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아픔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연대와 자비의 활동을 더욱 넓혀가고자 합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불교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치유의 길을 꾸준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행 속에, 한마디 따뜻한 말 속에,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든 한 호흡 속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연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찬 말처럼 정진 약속”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주인을 괴롭게 하지만, 잘 길들여진 말은 주인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마음도 그러하니, 바르게 길들여진 마음은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는 열정만 앞세우며 앞 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길들여진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해에는 내면을 먼저 살피고, 작은 깨우침에도 즉시 실천하는 ‘잘 길들여진 마음의 수행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중앙신도회도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강화를 위해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신도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불자는 물론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하고 행복한 해였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지혜를 모아 한국 불교 100년의 미래를 위해 힘찬 말처럼 정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좋은 동국, 나은 미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올해 동국대학교는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육구국의 원력으로 시작된 우리 대학은 지난 12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종립대학의 소명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6,5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30여 개국 유학생이 참여한 불교 동아리 창립으로 전법의 씨앗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120년의 전통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동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비상하는 해로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동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확고히 하고, AI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며 교육·연구 혁신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국대의 정진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평화 찾는 길동무”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



올 한 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4800여 포교사의 가정과 일상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발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포교 현장에서 마주한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증명하는 거울이며 보살행의 실천이었습니다. 포교사단에서 운영하는 불교문화해설사는 전통사찰과 성보에 깃든 천년의 향기를 품격 있게 전하는 활동입니다.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종단에서 추진하는 선명상 활성화를 위해 명상상담사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정신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자비롭게 어루만지겠습니다.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통하여 번뇌를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치유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서원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두 손 모아 합장 올립니다.

“조금 더 따뜻한 실천”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마음 둘 곳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은 많아지고 판단은 빨라졌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여유는 부족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나와 이웃을 함께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돌아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이 각자의 일상 속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는 늘 삶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쉼과 성찰의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조금 더 살아 숨 쉬고, 불자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경청하며, 조금 더 따뜻해지는 작은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희망 주겠다”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불교리더스포럼은 그동안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과 나눔의 불교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제7기 출범과 함께 종단과 세대를 넘어 연대하는 열린 공동체로, 대화와 숙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의 모습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수행에 뿌리를 둔 리더십,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공공성, 생명과 평화를 우선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도록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깨어 있는 수행자로서, 동시에 책임 있는 사회 지도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하며, 불교리더스포럼 회원 모두는 그 가운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사회에 희망과 울림을 전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심 단단해지는 해”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지난 한 해,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연대하며 여성불자로서의 수행과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재난으로 대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한번 깨닫고 생명존중의 삶을 다짐하며 시작했던 쓰담순례는 고운사, 신흥사, 해인사, 한양도성길까지 전국으로 이어져 내 삶을 바꾸는 실천하는 자비정신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웃종교 여성종교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2회차로 진행한 김장축제에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은 여성불자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불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전국여성불자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불자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일, 다음 세대를 품어 안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말과 글로 정법 정진”

김보배 한국불교기자협회장



새해를 맞아 전국의 불자를 비롯해 한국불교기자협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붉은색을 상징하는 ‘병(丙)’과 ‘말(午)’을 뜻하는 병오년은 뜨거운 생명력과 정진의 에너지를 품은 해입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쉼 없는 전진은 수행과 포교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기운처럼 우리 모두가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그 빛을 원동력 삼아 흔들림 없이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참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새해에도 말과 글이라는 정법의 도구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전쟁 피해 주민 긴급구호 캠페인

태국-캄보디아 무력 충돌로 국경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 중입니다.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엠립 지역의 사찰뿐입니다.
사찰은 쌀과 물을 나누며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늘어나는 피난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와 깨끗한 물이 절실한 지금,
쌀·생필품·식수 지원이 시급합니다.
작은 후원이 생명을 지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주세요.

후원계좌 : 기업은행 024-071023-01-031 (사)로터스월드
후원문의 : 02-725-4277

